

현대사회 표준화된 삶의 강제와 ‘보통 인간’*

- 『엔젠 씨 하차하다』와 『편의점 인간』 비교 분석

정윤희 (동덕여대)

I. 들어가는 말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운 현대사회는 표준화된 삶을 강제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균질적이고 획일화된 ‘보통 인간’만을 양산한다. 매뉴얼에 따라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처럼 인간과 인간의 삶은 철저히 규격화되고 표준화된다. ‘타자가 존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한병철의 선언처럼 현대사회는 타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이 지배하는 지옥’에 불과할 뿐이다.¹⁾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야콥 하인 Jakob Hein의 『엔젠 씨 하차하다 Herr Jensen steigt aus』(2006)²⁾와 무라타 사야카 Murata Sayaka의 『편의점 인간 Konbini Ningen』(2016)³⁾은 오직 같은 것이 창궐하는 현시대의 문제성을 논구하는 데 매우 적절한 예로 보인다. 2000년대에 나온 이 소설들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 이 논문은 2016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한병철: 『타자의 추방』, 이재영 역, 문학과지성사 2016, 38쪽 참조.

2) Jakob Hein: *Herr Jensen steigt aus*, München 2006. 이하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 ‘HJ’로 축약하고 쪽수를 병기한다.

3)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역, 살림 2016. 이하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 ‘편’으로 축약하고 쪽수를 병기한다. 무라타 사야카는 이 소설로 2016년 일본의 권위있는 문학상 이쿠타가와(荻川)상을 수상하였다.

다. 무엇보다 두 작품 모두 ‘보통’에 대한 사회·문화적 강제, 그에 따른 타자의 배제와 함께 만들기를 문제 삼고 있다. 주인공들은 ‘보통 인간’이라는 규격화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가 하면, ‘보통 인간’이 되기 위해 사회 규범에 자신을 맞추려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 표준화된 삶의 강제를 노동과 연관 짓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맹목적으로 노동 속에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이 경제화 되면서 인간의 삶이 기형화되고 인간이 탈본질화되는 현상을 비판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 앵글러 Wolfgang Engler는 『노동하지 않는 시민 Bürger, ohne Arbeit』(2005)에서 노동이 삶의 중심이 되는 노동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 개념에 근거한 대안사회를 위해 ‘시민수당 Bürgergeld’의 도입을 제안한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합법적으로 증명해야하는 이데올로기적 강요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Grundeinkommen’을 보장하자는 그의 제안은 당시 독일사회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⁵⁾ 앵글러의 저작이 나온 이듬해에 『엔젠 씨 하차하다』가 출간된 점으로 미루어 야곱 하인이 노동이라는 사회문제를 문학적으로 가공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밖에 통일 이후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한 독일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등을 목표로 이른바 ‘하르츠 개혁 Hartz-Reformen’으로 불리는 노동시장개혁을 단행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노동개혁 법안을 단계적으로 입법·시행하였는데, 2006년에 나온 『엔젠 씨 하차하다』가 당시 노동개혁의 문제를 문학화한 것이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⁶⁾ 이를테면 『엔젠 씨 하차하다』를 당시 노동개혁에 정공을 가한 소설로 평가하면서 주인공 엔젠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해고와 이후 그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이 인간의 삶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엔젠의 ‘무위’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재발견한다.⁷⁾ 그런데 노동이 서사에 있어 핵심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4) Vgl. Wolfgang Engler: Bürger, ohne Arbeit. Für eine radikale Neugestaltung der Gesellschaft, Berlin 2005, S. 31-45.

5) Vgl. Wolfgang Engler: Bürger, ohne Arbeit, S. 122-133.

6) Vgl. Steffen Richter: Tu doch einfach gar nichts. Jakob Hein führt einen erfolgreichen kleinen Totalverweigerer vor, in: Die Welt, 06.05.2006.

좀더 큰 맥락에서 보면 노동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엔젠 씨 하차하다』는 사회 규범에서 이탈한 자를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규격화하는가를 전경화 한다. 그 선상에 엔젠이 놓이는 것은 그가 노동이라는 사회규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⁸⁾ 『엔젠 씨 하차하다』가 보여준 획일화된 인간과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에서 한층 더 고조되고 극대화된다.

이 논문에서는 두 소설의 서사적 상수(常數)라 할 ‘보통 인간’에 대한 사회적 강제를 타자의 부정과 인간의 균질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사회는 개인의 자기 결정적 삶보다는 사회·문화적 규범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 그 결과 인간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체제와 관습을 따르는 유순한 존재로 정형화되고 탈본질화 된다. 먼저 개인의 개별성은 인정하지 않고 ‘보통 인간’으로 공동체에 편입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 비판이 ‘표지판’으로 환유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동질적이지 않은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연통관’의 원리가 사회의 균질화 원리로 상징되고(『엔젠 씨 하차하다』), 모든 게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편의점’이 표준화된 삶의 전형으로 서사화되는 방식을 논의한다(『편의점 인간』). 마지막으로 엔젠의 사회로부터 ‘하차하기’와 후루쿠라의 ‘편의점 인간되기’가 현대사회의 획일적인 인간과 표준화된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물음을 제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타자에 대한 부정과 표준화된 삶의 강제 - ‘보통 인간’

소설 『엔젠 씨 하차하다』와 『편의점 인간』의 각 서두에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두 주인공의 특이함이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서술, 부각된다. 자발적인 의지도 없고, 장래 희망이나 꿈도 없이 그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주인공 엔젠

7) 허영재: 무위(無爲)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야곱 하인의 『엔젠 씨 하차하다』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75집(2016), S. 155 참조.

8) Vgl. Steffen Richter: Tu doch einfach gar nichts.

과 후루쿠라는 아웃사이더 혹은 문제아로 그려진다. 학급친구들이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 할 때면 옌젠은 꼭 일류에서만 떠난 법 있냐, 이류에도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HJ, 6). 그저 가야 하니까 매일 학교에 갔고, 언제까지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리라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옌젠이 우편배달 일을 하게 된 것도 방학 때 우연히 친구를 따라 우체국에서 일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는 왜 대학에 다녀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수강신청과 시간표 짜는 일마저 성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 강의에도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한 그는 중간에 대학을 그만둔다. 그럼에도 옌젠은 “자신의 두뇌로 뭔가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 확신했다.”(HJ, 15) 자칫 간과하기 쉬운 서두의 이 문장은 일종의 복선과도 같다. IV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작품 말미에 ‘옌젠 씨 하차하다’에서 하차의 의미가 이 사회로부터의 하차일 뿐, 옌젠은 물론 이 사회에도 “훨씬 가치 있는 일”(HJ, 15)의 실현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옌젠은 또래아이들과 다소 다를 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 후루쿠라는 좀더 문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유치원생 시절 후루쿠라는 공원에 죽어 있는 새를 어머니에게 가져가 구워 먹자고 한다(편, 11) 초등학생 때는 체육시간에 남자아이들끼리 싸워 소란을 피우자 난폭하게 날뛰는 아이의 머리를 삼으로 후려치는 일이 있었다(편, 14). 이밖에 여선생님이 마구 소리를 지르며 이상행동을 보이자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여느 아이들과 달리 후루쿠라는 달려가 선생님의 스커트와 팬티를 확 끌어내렸고, 놀란 선생님은 울음을 터뜨리며 조용해진 사건이 있었다(편, 16).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너무도 자명한 것이 후루쿠라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데 있다. 어머니가 죽은 새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는 후루쿠라에게 슬프고 불쌍하지 않냐고 몇 번을 물어도 후루쿠라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편, 13). 삼으로 남학생의 머리를 내려친 일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와 선생님께 사과를 해도 무슨 영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선생님의 스커트 사건도 뭘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편, 16). 다만 그 후로 후루쿠라는 집 밖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삼가고, 다른 사람을 흉내 내거나 누군가의 지시만을 따를 뿐 자발적인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자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처세술”(편, 17)이었다. 후루쿠라는 줄곧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편, 18) 아이로 인식되었고, 그녀 자신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어른이 되어갔다(편, 19). 그녀가 다른 직장 동료나 친구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그들의 옷과 같은 옷을 구매해서 입는 행동 등은 남들과 같아져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8년간이나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편의점에서는 그것만 따르면 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개인이 ‘뭘 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젠 역시 하랄드 생일파티에 가면 옛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화는커녕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마다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만을 쏟아냈고, 그럴 때마다 예젠은 ‘아무 것도’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점과 선을 지닌 외관상 일목요연한 좌표계”(HJ, 42)에 놓이고 싶어 한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젠은 “모호하고 중잡기 어려운 모순 덩어리”(HJ, 42)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에서 당한 갑작스런 해고는 그를 보통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 아웃사이더의 위치로 몰아내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해고로 인해 예젠은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불현듯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었다”(HJ, 82)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늘 알고 있던 것처럼,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했을 뿐 바로 눈앞에 있던 것처럼”(HJ, 82)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즉 사회의 “윤리적 규범”(HJ, 82)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직 후 예젠은 수개월 동안 TV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탐구한다. 미디어 분석을 통해 그가 발견한 것은 ‘평범함’에 대한 사회의 요구, 즉 보통 사람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이다. 미디어들은 저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오히려 “누구나 [...] 규범에 맞춰”(HJ, 83) 살라고 강권한다. 예젠이 발견한 ‘평범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 배우자가 있거나 적어도 갖는 성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 친구가 많아야 한다. [...] / 돈이 있어야 한다. [...] / 새로운 자신을 계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 꿈이 있어야 한다.”(HJ, 83)

위와 같은 사회의 기준에 따르면 엔젠은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역시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그의 방식, 엔젠 시스템”(HJ, 5)에 따라 주어지는 일을 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늘 “사회의 주변에”(HJ, 83) 있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평범함을 ‘표지판’(HJ, 113)으로 상징되는 사회 시스템과 연결 짓고 있는 점은 각별히 주목할 일이다. 말하자면 ‘통행 금지’, ‘들어오지 마시오’ 혹은 ‘정차 금지’처럼 대부분의 표지판에서 “화자는 분명 사회, 시스템”(HJ, 114)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강요하는 이 사회체제는 결국 타자를 부정하고 획일화된 개인만을 양산한다. 이를 엔젠 씨는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시스템은 말했다. ‘안 돼’, 늘 그저 ‘안 돼!’ ‘금지!’ ‘내버려 뒀!’ 수많은 느낌표들. 인간이 존재에 감사할만한 표지판들도 없었고, 사람이 자기 삶을 즐겨야 한다는가 창작이 삶의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것에 관한 언급들도 없었다. [...]”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경고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 경고들은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HJ, 114f.; 인용자 강조)

사회가 경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다. 금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통해 이들을 끊임없이 균질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시스템의 폭력을 두 소설은 엔젠과 후루쿠라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준다. 이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정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엔젠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상담원 오르트너 여사, 친구 마티아스, 상사 뵘 씨 등은 모두 보통 사람의 일면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엔젠의 어머니는 가능한 빨리 손자를 보기 위해 신붓감을 발 벗고 나서서 찾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다짐을 받아놓는가 하면, 엔젠의 아버지는 대학 공부만큼은 반드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HJ, 10). 이와 관련하여 작품 말미에 식물의 성장 이론에 관한 엔젠의 반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론에 따르면 식물 성장의 모든 과정이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지만, 엔젠은 그 연구가 “분자의 개체성”(HJ, 109)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엽록소의 한 분자가 다른 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런데 한 개인의 개별성이 인간이라는 개개 분자들의 개별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유래한다는 말인가.”(HJ, 110)

위와 같은 엔젠의 물음은 인간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를 비판한다. 『편의점 인간』에서도 타자에 대한 부정은 후루쿠라를 ‘기분 나쁜 생물’을 보듯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편, 98). “일이나 가정을 통해 사회에 소속하는 게 의무”(편, 77)라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대학졸업 후 취직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결혼조차 하지 않은 후루쿠라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⁹⁾ 그로 인해 후루쿠라는 자신을 ‘이물질’같은 존재로 여긴다.

“정상 세계는 대단히 강제적이라서 이물질은 조용히 삭제된다. 정통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처리된다.

그런가?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치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들에게 삭제된다. 가족이 왜 그렇게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지, 겨우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편, 98; 인용자 강조)

인용문에서 보듯이 정형화된 삶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된다. 텍스트에 줄곧 반복되는 ‘삭제’나 ‘처리’ 등의 어휘는 인간의 사물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서사전략이다. 전혀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지만 “단지 소수파라는 이유만으로”(편, 105)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회부적응자”(편, 163)로 취급한다. 따라서 무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방해자로 취급당하지도 않으려면 “보통 사람이라는 거죽을 쓰고 그 매뉴얼대로 행동”(편, 112)해야 한다. 후루쿠라가 편의점 점원 제복을 입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편의점 ‘점원’이라는 균일한 생물”(편, 23)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9) 흥미롭게도 성에 대해서도 엔젠과 후루쿠라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것으로 묘사된다. 이들이 성경험은 물론 연애조차 해 본적이 없다는 점도 유사하다. 엔젠이 자비네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자비네가 샤워하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나왔듯이 후루쿠라는 시라하와 자신의 집에 동거하지만 결코 이성애에 대한 감정을 느끼진 않는다.

『편의점 인간』의 또 다른 주요인물 시라하는 ‘보통 사람’의 정형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 폭력성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은 “현대사회의 거죽을 쓴 조몬 시대”(편, 109)에 불과할 뿐 ‘보통’에 대한 강요는 다를 게 없다.

“이 세상은 조몬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걸. 무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삭제** 되어갑니다. 사냥을 하지 않는 남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 현대사회니 개인주의니 하면서 무리에 소속되려 하지 않는 인간은 간섭받고 강요당하고, 최종적으로는 무리에서 **추방**당해요.”(편, 108; 인용자 강조)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사냥하러 가서 돈을 벌어 오거나, 둘 중 하나의 형태로 “무리에 기여하지 않는 인간은 이단자”(편, 125) 취급을 받는다. 시라하가 후루쿠라에게 위장 동거를 제안한 것도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물질’, ‘이단자’, ‘쓰레기’, ‘짐’ 등은 ‘보통 인간’과 동위소인 ‘평범’, ‘무리’, ‘정상 세계’와 대척관계에 있다. ‘삭제’, ‘추방’, ‘처리’ 등은 그 사회적 배제를 일컫는 다른 표현인 셈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후루쿠라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절체절명의 수단이다. 그러나 편의점 공간 속에서 그녀의 삶은 화석화된다. 그녀는 늙어 편의점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편, 93). “여느 때라든 내일 근무를 위해 먹이를 먹고 잠을 자면서 내 육체를 조절할 때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몸은 편의점의 것이었다.”(편, 170) 모든 것을 편의점에 합리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던 후루쿠라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완전히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편, 176)가 된다. 편의점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 몸을 움직이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몸은 편의점의 것이었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잠을 자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것도 내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편, 174)

현대인들은 자아의 최적화를 통해 사회시스템에 완전히 부합하려 한다. 그러나 자아 최적화는 완벽한 자아의 착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단한 자아 최적화는

결국 정신의 붕괴로 이어진다.¹⁰⁾ 『편의점 인간』의 후루쿠라가 ‘편의점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와 같은 정신의 붕괴, 인간의 탈본질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복해서 강조되는 ‘편의점 동물’은 그러한 인간 영혼의 파괴를 은유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엔젠 씨 하차하다』와 『편의점 인간』은 두 주인공을 통해 현대사회의 ‘같이 만들기’의 논리를 비판한다. 주인공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타자로부터 소외되며 자기로부터도 소외를 경험한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를 이질적인 존재로 규정 짓는다. 보통 인간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길을 후루쿠라가 편의점에서 찾고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반면, 엔젠은 사회 규범에 항거하고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III. 인간의 균질화와 규격화 — ‘연통관시스템’과 ‘편의점’

『엔젠 씨 하차하다』의 1장에 나오는 “연통관시스템 kommunizierende Röhrensystem” (HJ, 10)은 현대사회의 작동원리를 응축하고 있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연통관이란 둘 이상의 관 하부를 하나로 연결한 관을 일컫는다. 그 관 속의 액체는 중력과 압력이 일정할 경우 관의 모양이나 액체의 양과 상관없이 표면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한다. 즉 관의 액체가 동질하면 같은 높이를 나타내고, 동질적이지 않으면 그 높이는 각각의 무게에 비례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연통관의 원리다. 무엇보다 진동·기압·온도 등의 차이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연통관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려면 장애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엔젠 씨 하차하다』는 구성원 모두를 동질화시켜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사회시스템의 작동기제를 문제 삼는다. 보통 인간은 그러한 동질화를 은유하며, 노동은 동질화를 추동하는 핵심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과 직업 재교육과정, 이후 노동을 거부하고 무위로 전향하기까지 엔젠의 삶의 여정은 노동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엔젠은 16년을 비정규직으로 우체국에서 일했다. 시스템 내부의 상호 소통과

10)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 S. 48 이하 참조.

이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옌젠은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매개체, 우편물처럼 소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가 언제나 주어진 업무를 정확한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옌젠 시스템’ 덕분이다. 그러나 해고로 인해 더 이상 그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 보호대책’이라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옌젠은 정규직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¹¹⁾ 해고는 ‘사회적 배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질적 행위이다. 해고로 인해 옌젠 시스템은 교란상태에 빠지고, 그의 삶은 균형을 잃는다. 고용주(우체국 국장 뵘)와 피고용인(옌젠) 간의 대화는 이 사회시스템과 옌젠 시스템 사이에 어떠한 소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뵘의 해고 통보는 그저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만을 역설한다. 해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는 결여되어 있다.¹²⁾

인력알선 에이전시와 자질향상 교육은 사회구성원을 동질화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직업재교육과정의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드러냄으로써 노동조합이 사회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고된 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방문한 옌젠이 담당직원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재교육 과정의 아이러니는 하르츠 개혁 자체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옌젠은 다시 우체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지만 담당자는 그의 바람과 무관한 재교육만을 강권한다. 자질향상 교육에 관한 서사에서 실업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취업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무능 탓으로 전가시키는 사회비판도 엿볼 수 있다. 자질향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오르트너 여사의 엄포에 결국 옌젠은 6주 동안 ‘요식업의 강자’ 교육을 받는다. 옌젠이 대기실에서 만난 한 구직자는 호텔 웨이터 경력에도 불구하고 물류 유통 관련 재교육을 받게 되고, 우체국 업무를 했던 옌젠은 요식업 관련 재교육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과 새로운 노동개혁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폭로한다.

마침내 기한제한도 없이, 상담을 받지 않고도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 Vgl. Carola Opitz-Wiemers: “Ich kann nur Postbote”. Jakob Heins *Herr Jensen steigt aus als Roman einer Desillusionierung*, in: Martin Hellström, Edger Platen (Hg.), *Armut. Zur Darstellung von Zeitgeschichte in deutschsprachiger Gegenwartsliteratur*. München 2012, S. 169f.

12) Vgl. Carola Opitz-Wiemers: “Ich kann nur Postbote”, S. 170.

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옌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면서 그들은 왜 한사코 내게 일자리를 주려는 걸까. 난 일자리를 부탁한 적도 없는데. 구직자가 그렇게 많다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나 일자리를 줄 것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걸까?”(HJ, 107)

옌젠의 위와 같은 의문은 사회구성원에게 강요되는 노동과, 노동이란 이름하에 자행되는 인간 균질화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 규율의 내면화는 다양한 미시 권력의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의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까지 식민화해왔다. 고대에 자유롭지 못한 노예 활동으로 인식되던 노동이 오늘날 모든 인간 행위의 근본으로까지 고양된 데에는 사회 체제와 그 지배의 내면화과정이 작용하고 있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옌젠의 의문은 노동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하겠다.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1장 “옌젠 씨 소개되다”에서부터 18장 “옌젠 씨 포기하다”에 이르기까지 각 장의 제목이 모두 ‘옌젠 씨 ~하다’라는 문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옌젠이 하차하기까지의 과정과 진정한 의미의 옌젠 ‘되기’ 과정이 순차적으로 열거된다.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인해 텍스트는 허구가 아닌 일종의 보고서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텍스트에 진술된 내용을 좀더 객관화된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서사전략이다.¹⁴⁾ 특기할 만한 사실은 주인공 옌젠이 ‘옌젠 씨’로만 언급될 뿐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점이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식이라고 한다면, ‘옌젠 씨’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작품 서두에 옌젠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는 ‘옌젠 시스템’이 소개된다. 옌젠은 주소지의 이름이 우편함과 맞아떨어지는 순간, “마이어, 마이어, 마이어, 마이어 ... 마이어!”라고 약간 큰 소리로 이름을 되뇌면서 편지를 투입구에 밀어 넣고 다음 편지를 꺼내곤 했다(HJ, 7). 이는 작품 말미에 옌젠이 자신의 우편함을 떼어버리고 “문 앞에 걸린 문패를 떼어냈다.”는 마지막 문장과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그 의미를 증폭시킨다.

13) 크리스스: 『노동을 거부하라!』, 김남시 역, 이후 2007, S. 25-62 참조.

14) Vgl. Steffen Richter: Tu doch einfach gar nichts.

『엔젠 씨 하차하다』에서 연통관의 원리가 사회구성원의 동질화를 상징한다면, 『편의점 인간』에서는 서사의 공간적 배경을 이루는 편의점이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어느 곳이든 같은 형태의 편의점은 표준화된 세계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투명한 유리화 환한 조명 아래 다양한 물품들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비하고 있는 편의점은 획일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호텔체인, 레저타운, 쇼핑몰 등과 같이 ‘비장소 Nicht-Ort’를 대표하는 공간들 가운데 하나다.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에 따르면, 인류학적인 장소는 정체성과 관련되며 관계적이고 역사적이다. 이에 반해 ‘비장소’는 정체성과 무관하며 관계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공간이다. 편의점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는 부재한 채 대부분 리더기와 카드, 계산대에 의해서만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 일시성, 순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장소들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이나 유기체적 결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요구함으로써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평균적’ 인간을 양산할 뿐이다.¹⁵⁾ 그러므로 서사가 전개되면서 후루쿠라가 편의점 인간이 돼가는 과정은 그녀가 보통 인간으로 규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1학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래 서른여섯 살이 된 후루쿠라는 18년 동안 줄곧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편의점이 그녀의 삶에서 더없이 각별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는 시간, 자신도 톱니바퀴의 하나, 즉 “세계의 부품”(편, 9)이 될 수 있어서다.

“아침이 되면 또 나는 점원이 되어 **세계의 톱니바퀴**가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었다.”(편, 30; 인용자 강조)

중요한 것은 평소 후루쿠라가 자신을 뭔가 고쳐야하는 존재, 사회의 이물질로 여기지만, ‘어서 오십시오’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인 편의점에서만큼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투명한 화폐 교환만이 가능한 편의점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첨단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 편의점에서는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고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등 모든

15) Vgl. Marc Augé: Nicht-Orte, aus dem Französischen von Michael Bischoff, München 2010; Fr.: Non-Lieux. Introduction à une qnthropologie de la surmodernité, Paris 1992, S. 83.

것이 기계적이다. 그곳에서는 “머리는 거의 쓰지 않고 내 안에 배어 있는 규칙이 육체에 지시를”(편, 6) 내릴 뿐이다. 따라서 그녀는 “좋은 부품으로 취급”(편, 55) 될 뿐 어떤 인간적인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복을 입기만 하면 모두가 점원이라는 “균등한 존재”(편, 50)일 수 있는 편의점은 후루쿠라에게 “확고하게 정상적인 세계”(편, 41)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매뉴얼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통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편, 29)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그녀가 “어딘지 모르게 모조품처럼”(편, 23) 느끼는 까닭도 자신이 보통 인간의 삶을 흉내 내어 연기하고 있다는 무의식에서 발원한다.

연통관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역시 이물질들을 배제함으로써 모든 것을 “강제로 정상화”(편, 75) 한다. 편의점에서 시라하가 보인 행태를 점원들이 비난하자 후루쿠라는 자신도 이물질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배제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편, 89). “이 세상은 이물질은 인정하지 않아요.”(편, 105)라는 시라하의 말처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남들과 다른 사람은 “가게의 세포가 또 하나 교체”(편, 89)되듯이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추방된다.

“무리에 필요 없는 인간은 박해받고 경원당하죠. 그러니까 편의점과 같은 구조에요. 편의점에 필요 없는 인간은 교대 근무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해고를 당하죠.”(편, 112)

편의점은 오늘날 인간이 처해있는 경제체제에 대한 비유로까지 확장된다. 모든 것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생산·소비되고 진열·판매되는 편의점은 현대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언제든 폐기처분된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후루쿠라는 “18년 동안 그만두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빈틈은 메워져버린다. 내가 없어진 자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충원되고, 편의점은 내일부터 전과 똑같이 굴러갈 것이다.”(편, 168) 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편의점을 서사의 중심축에 두고 있는 것은 효용성에 기반을 둔 인간의 사물화와 도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점장이 ‘쓸 만하다’는 말을 자주 쓴다거나 후루쿠라가 자신이 쓸 만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대목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잉여나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고 “쓸 만한 도구”(편, 100)가 되는 길을 후루쿠라는 편의점을 위한 존재, 편의점 인간에서 찾고 있다.

IV. 엔젠 씨의 ‘하차하기’와 후루쿠라의 ‘편의점 인간되기’

『엔젠 씨 하차하다』에서 실직 후 엔젠은 6주간의 재교육 과정을 받지만 어떤 의미나 소득도 얻지 못한다. 12장은 엔젠이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HJ, 88)을 결심하고 그것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삶도 가능하고 또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막 그는 한 잔의 커피를 마셨고, 그걸로 좋았다.”(HJ, 88)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엔젠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뿐이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란 “나 자신의 고용주”(HJ, 92)가 되어 “아무 것도 안 하고”(HJ, 92) 사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엔젠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은 동창 마티아스다. 남들처럼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마티아스는 보통 사람의 전형으로 설정된 인물이다. 그에게 엔젠은 자신이 뭔가를 하기 원하는 세상에 대항해서 ‘무위’로 싸워보려 한다고 말한다.

“아무 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 [...] 그러니까 이젠 말하자면 내가 맡은 사회적 역할이야.”(HJ, 93)

엔젠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든 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입되어서 그렇지(HJ, 92),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항변한다. 엔젠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자 노동형태로서 ‘게으름’을 결정한다.¹⁶⁾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는 사회와 절연한 채 ‘무위’를 실현하는 형태로 극단화된다. 엔젠은 마티아스에게 모든 미디어를 끊은 후로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토로한다(HJ, 95). 화이트노이즈로 가득 찬 “허상의 세계”(HJ, 107)에 대한 엔젠의 비판은 그가 모든 매

16) Vgl. Susanne Heimburger: Kapitalistischer Geist und literarische Kritik. Arbeitswelten in deutschsprachigen Gegenwartstexten, München 2010, S. 139.

체를 끊고 외부와 단절한 채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허상의 세계’와 대비를 이루는 것은 ‘자연’과 ‘침묵’이다. 자연에 대한 인식은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예젠은 “자연과의 내적인 결합과 사색적인 침묵”(HJ, 110)을 통해 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예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일인 가두시위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할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방식의 삶도 있다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걸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HJ, 117). 그런데 그가 플래카드를 드는 방식의 시위가 아닌 침묵시위를 결심한 것은 플래카드의 문구 역시 표지판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서다. 군중에 대한 예젠의 생각에서 소수의 타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군중 속에서는 금세 그날의 대다수 의견이 지배하는 일종의 통일된 의견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얼마 안 되는 흥미로운 소수의 견해는 매몰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수자들이 순식간에 군중에 동화되어 의견일치에 만족하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견인 양 착각한다는 점이었다.”(HJ, 116f.)

시위를 한 다음 날 마트에서 만남 뵈 국장과의 대화는 ‘다수 의견’에 동화되지 않는 소수자로서의 예젠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뵈 국장은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사건에 대해 예젠이 무관심한 것을 나무란다. 우린 “이 세상의 일부”(HJ, 123)이므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예젠은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의 숫자판도 묘사할 줄 모르고 거리에 무슨 나무가 서 있고, 꽃은 언제 피는지도 모르면서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는 세상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항변한다(HJ, 124). 일손이 모자라니 잠시 일을 해줄 의향이 있느냐는 뵈 국장의 물음에 그는 “예젠은 하차했고, 다시는 승차하지 않는다 고!”(HJ, 126) 단호히 거절한다. 예젠의 이 같은 선언은 더 이상 사회 ‘표지판’의 지시에 순응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다. 이후 예젠은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내려놓은 채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이 찾아지고 그는 소파에 앉아 이미 오래 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엔젠을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HJ, 131) 여기고 비정상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엔젠의 무위를 “허상의 세계에 대한 그의 조용한, 마지막 승리”(HJ, 128)라고 언급한 대목은 ‘노동할 권리’가 아닌 ‘게으름 권리’를 주창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

자본주의 노동윤리에 대한 비판서인 『게으름 권리』에서 폴 라파르그는 노동을 숭배하게 된 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강제로 노동에 투입시키기 위해 노동을 절대적인 미덕으로 유포한 데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¹⁷⁾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정서적, 육체적 능력을 사용하는 동시에 그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단 노동의 주체가 인간 자신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1883년에 라파르그가 쓴 혁명적인 글이 나온지 1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노동은 인간의 본질을 더욱 왜곡하고 기형화시킨다. 엔젠의 무위와 후루쿠라의 편의점 인간은 바로 이러한 노동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편의점 인간』의 결말은 『엔젠 씨 하차하다』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엔젠 씨가 자신만의 시공간 속으로 침잠해 들어간 데 반해 후루쿠라는 정상의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더욱더 편의점을 위한 존재, ‘편의점 인간’이 되어간다. 후루쿠라 역시 편의점에 사표를 낸 뒤 한동안은 엔젠처럼 두문불출한다. 그녀는 공허함, 무기력증,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상과의 결속이 사라짐에 따라 자아가 자기 자신에게로 되던져진 결과이다. 그녀의 자존감 결핍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해 줄 타자를 필요로 한다. 자존감이란 주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루쿠라가 편의점 업무에서 갖는 자긍심은 자존감 결여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후루쿠라도 엔젠과 마찬가지로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 몸속에 분노라는 감정은 거의 없다. 일할 사람이 줄어서 곤란하구나 생각할 뿐이다.”(편, 39) 이 점에서 후루쿠라와 대조적인 인물인 시라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무리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 한다.

17) 폴 라파르그: 『게으름 권리』, 조형준 역, 새물결 1997, S. 43-49 참조.

“밖에 나가면 내 인생은 또 강간당합니다. 남자라면 일을 해라, 결혼해라, 결혼을 했다면 돈을 벌어라, 애를 낳아라. 무리의 노예예요. 평생 일하라고 세상은 명령하죠. 내 불알조차 무리의 소유예요. 성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자를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당한다니까요.”(편, 128 이하)

시라하가 ‘애완동물’처럼 후루쿠라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것은 조문시대 이후로도 줄곧 변하지 않고 내려온 성역할에 대한 항거라 할 수 있다. 시라하는 자신이 후루쿠라한테 붙어살려는 것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에 기생하는 것에 복수하는 의미에서 스스로가 기생충이 되려 한다는 것이다(편, 146). 여기서 먹이를 먹는 것이 시라하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루쿠라 역시 “내일 또 일하기 위해 눈앞의 먹이를 몸속에 채워 넣었다.”(편, 147) 동물처럼 후루쿠라는 평소 요리를 하지 않고 각종 야채나 닭고기 등 삶은 식재료를 먹는다. 그녀가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에서 삶이 더 이상 인간적이지 않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인간 개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노동기계로 전락한 현대인의 존재를 부각한다. 마지막 장면은 인간의 탈인간화를 상당히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인간인 것 이상으로 편의점 점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비뚤어져 있어도, 먹고살 수 없어서 결국 길가에 쓰러져 죽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 모든 세포가 편의점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요.”(편, 188 이하)

오직 ‘편의점 점원이라는 동물’로 머물겠다는 후루쿠라는 그런 생물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무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시라하의 반박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후루쿠라는 편의점을 위해 다시 몸을 조절하려한다. 다시 말해 편의점의 ‘목소리’에 좀 더 완벽하게 따를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것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한다. 이는 ‘자기최적화’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 ‘기업가적 자아’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¹⁸⁾ 후루쿠라

18) ‘기업가적 자아 *unternehmerisches Selbst*’는 푸코의 ‘통치성 *Gouvernementalität*’ 담론의 주된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의 모든 것이 경제화 되면서 주체는 언제나 ‘최적화된’ 상태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도록 요구받는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경제인은 자신의 노동을 합리화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 자신을 통치하게 된다. Vgl. Lara Gfrerer: In den Greifarmen des unternehmerischen Selbst. Neoliberale

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장에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손도 발도 편의점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자, 유리창 속의 내가 비로소 의미 있는 생물”(편, 191) 같다고 여긴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편의점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편, 5)로 시작한다. 소설의 마지막에는 편의점의 소리가 아닌 “편의점의 ‘목소리’”(편, 183, 186, 187)로 편의점이 중국에는 의인화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자.

“편의점 안의 모든 소리가 의미를 갖고 떨리고 있었다. 그 진동이 내 세포에 직접 말을 걸고, 음악처럼 울리고 있었다. 이 가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본능이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편, 183)

나에게는 편의점의 ‘목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다. 편의점이 되고 싶어 하는 형제, 가게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 온다. **내가 아니라 편의점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편의점이 내리는 계시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다.**”(편, 187; 인용자 강조)

편의점은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로 의인화되고 신격화된다. 편의점의 소리가 작품 말미에는 목소리로 바뀌고, 인간 후루쿠라는 편의점 인간이 되어간다. 이러한 구도는 삶이 노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인간의 삶을 잠식해가면서 통제하는 ‘전도된’ 상황을 명징하게 드러내준다. 다른 한편 후루쿠라가 편의점 소리를 듣는 것과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 반복 교차해서 서술된다. 후루쿠라가 편의점 소리를 듣는 것은 사회의 정상인이길 원하는 무의식적 욕구가 강할 때이다. 반면 자신이 정상적인 세계에 속해있다고 느낄 때면 고요가 찾아온다(편, 166). 결국 후루쿠라는 자신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착취하기에 이른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외가 생기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세계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파괴적인 자기소외, 즉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다. 이 자기소외는 다름 아닌 자기최적화 및 자기실현과 더불어 생겨난다. 성과주체가 자신을, 예컨대 자신의 몸을 최적화해야 할 기능적 객체로 지각하는 순간, 이 주체는 자신으로부터 서서히 소외된다.”¹⁹⁾

Gouvernementalität, Disziplinarmacht und die Inwertsetzung von Langzeitarbeitslosen, Marburg 2016, S. 72-76.

후루쿠라처럼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기술 속에서 주체는 자신이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예속된 주체에게 지배 관계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권력 기술은 자발적으로 지배 관계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두 소설은 신자유주의적 권력 기술에 어떠한 형태로 한 개인이 변모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예젠의 경우 노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노동에서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정형화된 보통 인간의 삶을 위반한다. 결국 사회와 단절하고 철저하게 독자적인 ‘예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체제와 ‘보통 인간’이라는 사회규범에 반기를 든다. 보통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젠은 이물질이자 잉여,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역으로 예젠의 관점에서 보면 버려진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일 수 있다. 예젠을 통해 작가는 과연 누가 이 사회의 주인공이고 누가 실패자인가를 묻고 있다.²⁰⁾ 반면 후루쿠라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편의점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한다. 노동이 그녀에게는 의미추구의 목적이자 삶 전체를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통해 『편의점 인간』은 사회가 한 개인을 ‘경제적 인간’으로 내몰고, 그것을 추동하는 ‘보통 인간’에 대한 사회적 강제를 비판한다.

V. 맺는 말

오늘날 같은 것의 지배와 폭력은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대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같은 존재로 획일화된 인간의 문제를 『예젠 씨 하차하다』와 『편의점 인간』은 ‘보통 인간’에 대한 사회적 강제와 연관 짓고 있다. 보통 인간과 대비되는 예젠과 후루쿠라, 두 인물의 설정은 부정성으로서의 이질성이 철저하게 부정되는 현실을 부각한다.

오늘날 주체는 두 가지 선택만을 강요받는다. 사회 부품으로서 ‘기능하기’와 사회에서 낙오자 되기, 즉 ‘실패하기’다. 그런데 주체는 갈등을 알지 못하고 분노할

19) 한병철: 2016, 같은 책, S. 62ff.

20) Vgl. “Der Fall Jensen”, in: Der Spiegel. 15.04.2006.
<http://www.spiegel.de/spiegel/a-411429.html>

줄 모르는 기계와 같다.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거나 고장이 날 뿐이다.²¹⁾ 『편의점 인간』의 후루쿠라가 진정한 인간이 아닌 편의점 인간이 돼가는 과정은 현대사회 인간의 탈본질화에서 비롯한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편의점은 의미가 제거된, 효율성만을 내세운 표준화된 공간이면서, 교환가치에 기반 한 사물들의 집적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²⁾ 요컨대 『편의점 인간』에서 현대사회의 축소판으로 그려지는 편의점은 인간의 사물화와 균질화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편의점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기능하기를 택한 후루쿠라와 달리, 엔젠은 스스로 낙오자 되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엔젠의 하차를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를 도발하고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필경사 바틀비 Bartleby, the Scrivener』(1853)의 바틀비처럼 엔젠이 외부세계와 절연하는 것은 체제 안이나 체제 바깥의 특정 위치에서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바틀비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라는 정형어구와 마찬가지로 엔젠은 기존 질서의 바깥을 향한다. 그는 체제로부터 자신을 빼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엔젠의 이러한 비타협성은 바틀비가 보여준 것처럼 사회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무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엔젠이 실현하는 무위는 노동을 통해 보통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외적 강제에 대한 강력한 주체적 대응이다. 엔젠의 ‘~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의 힘은 단순한 무력감이나 무언가를 할 능력의 부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편배달 일을 할 당시의 “그의 방식, 엔젠 시스템”(HJ, 5)이 중국에는 엔젠 고유의 ‘삶의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된다. 이를 통해 노동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본질로부터 소외시키고 탈가치화 시키는 현실을 폭로한다. 나아가 같은 것만이 창궐하는 ‘허상의 세계’에서 엔젠의 ‘하차’는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한다. 엔젠의 ‘하차’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21) 한병철: 2016, S. 41ff.

22) 정윤희: 편의점의 ‘거대한 관대’와 현대 소비자본주의 도시적 삶. 김애란의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7집(2016), S. 74ff. 참조.

참고문헌

1차 문헌

Hein, Jakob: *Herr Jensen steigt aus*, München 2006.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김석희 역, 살림, 2016.

2차 문헌

정윤희: 편의점의 '거대한 관대'와 현대 소비자본주의 도시적 삶. 김애란의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7집(2016), 65-88쪽.
크리시스: 『노동을 거부하라!』, 김남시 역, 이후 2007.
폴 라파르그: 『게으른 권리』, 조형준 역, 새물결 1997.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
한병철: 『타자의 추방』, 이재영 역, 문학과지성사 2016.
허영재: 무위(無爲)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야곱 하인의 『옌젠 씨 하차하다』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75집(2016), 153-175쪽.
Augé, Marc: *Nicht-Orte*, aus dem Französischen von Michael Bischoff, München 2010;
Fr.: *Non-Lieux. Introduction à une qnthropologie de la surmodernité*, Paris 1992.
Engler, Wolfgang: *Bürger, ohne Arbeit. Für eine radikale Neugestaltung der Gesellschaft*, Berlin 2005.
Gfrerer, Lara: *In den Greifarmen des unternehmerischen Selbst. Neoliberale Gouvernementalität, Disziplinarmacht und die Inwertsetzung von Langzeitarbeitslosen*, Marburg 2016.
Heimburger, Susanne: *Kapitalistischer Geist und literarische Kritik. Arbeitswelten in deutschsprachigen Gegenwartstexten*, München 2010.
Opitz-Wiemers Carola: "Ich kann nur Postbote". Jakob Heins *Herr Jensen steigt aus* als Roman einer Desillusionierung, in: Martin Hellström, Edger Platen (Hg.): *Armut. Zur Darstellung von Zeitgeschichte in deutschsprachiger Gegenwartsliteratur*. München 2012, S. 167-176.
Richter, Steffen: Tu doch einfach gar nichts. Jakob Hein führt einen erfolgreichen kleinen Totalverweigerer vor, in: *Die Welt*, 06.05.2006.
"Der Fall Jensen", in: *Der Spiegel*. 15.04.2006. <http://www.spiegel.de/spiegel/a-411429.html>

Zusammenfassung

Zwang zum standardisierten Leben und „normalen Mensch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 Jakob Heins *Herr Jensen steigt aus* und Sayaka Muratas *Konbini Ningen*

Joung, Yoon-Hee (Dongduk Frauenuni)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den Zwang zum normalen Menschen in Jakob Heins *Herr Jensen steigt aus* (2006) und Sayaka Muratas *Konbini Ningen* (2016) aus der Perspektive der Kritik am standardisierten Leben der modernen Gesellschaft zu analysieren.

Herr Jensen steigt aus greift auf die bewusste Desintegration des Helden aus der Arbeitswelt zurück. Herr Jensen als ein Totalverweigerer kann als eine Inkarnation der Freiheit und des Protests gegen die Konformisierung durch die Pflicht zur Arbeit gelesen werden. Im Gegensatz zum müßiggängerischen Protagonisten bei Hein begibt sich Sayaka Muratas Heldin auf den Weg der Anpassung an die Anforderungen der Arbeitswelt. ‘Der Convenience store’ in *Konbini Ningen*, der als rationalisierter Raum konzipiert ist und in dem sich die Heldin zum nützlichen Wesen sowie zum ‘Kamrad der Welt’ werden lässt, verkörpert die Enthumanisierung der Menschen.

Das Bild des normalen Menschen, das in diesen Romanen aufgegriffen und in ein besonderes Licht gerückt wird, lässt sich als Allegorie der Normung oder Vereinheitlichung von Menschen in der standardisierten Gesellschaft begreifen. Somit sind die beiden entgegengesetzten Gestalten, der Müßiggänger und der mechanisierte Mensch, die Gegenentwürfe zum normalen Menschen der modernen kapitalisierten Welt, in der Individualität jedes Einzelnen und Eigenartigkeit des Menschen nicht mehr anerkannt wird.

주제어: 보통 인간, 표준화된 삶, 규격화, 획일화, 현대사회

Schlüsselbegriffe: normaler Mensch, standardisiertes Leben, Normierung, Vereinheitlichung,
moderne Gesellschaft

필자 E-Mail 주소: jungyh@dongduk.ac.kr

논문투고일: 2017.10.10. / 논문심사일: 2017.10.31. / 게재확정일: 2017.11.11.